

국내외 여성 이슈

(2017. 1~3)

- 국외 여성 이슈
- KWDI 동정

국외 여성 이슈¹⁾

(2017.1~3)

1. 부르키니, 그리고 프랑스 내 무슬림 여성의 자유²⁾

작년 9월, 프랑스 리비에라(Riviera) 해변에서 찍힌 한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바로 여성 이슬람교도를 위한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burkini)를 입고 있던 무슬림 여성이 무장한 경찰로부터 둘러싸여 부르키니를 탈의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장면이다. 사실 이에 앞서 지난 8월,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여성은 입고 싶은 것을 입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프랑스 내 무슬림 여성 부르키니 착용 금지 법안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슬림 여성의 자유는 프랑스 내 무슬림 사회에서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례로, 프랑스 국영방송 2TV와 양성평등 개선을 위해 설립된 단체 Brigade Des Mères (BDM)가 직접 나서 무슬림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파리 근교의 한 도시 세브랑(Sevran)의 여성들의 일상 현황을 취재하였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실험 차원에서 여성 인권 운동가 2명이 일반 주점인 바(bar)에 들어가려고 하자, 입장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가 보도된 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Minister of State for Digital Affairs) 악셀 르메르(Axelle Lemaire)는 “이는 무슬림이라는 종교 문제라기보다는, 여성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이라고 언급하기도 한 바 있다. 결국 부르키니에서 비롯되어 여성 인권까지 번지게 되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성이 옷을 입거나 집 밖을 돌아다니는 기본적인 행동에 있어 ‘무슬림 여성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프랑스 당국 차원에서, 또는 무슬림 남성들 차원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Women shunned in some Muslim neighborhoods in France,” 2016년 12월 14일자, RT News,
- <https://www.rt.com/news/370265-women-shunned-in-france/> (접속일: 2017년 1월 10일)
- “This isn’t Paris. It’s only men here” – Inside the French Muslim no-go zones where women aren’t welcome,” Telegraph, 2016년 12월 18일자,
- <http://www.telegraph.co.uk/news/2016/12/17/french-bar-tells-women-isnt-paris-men/> (접속일: 2017년 1월 10일)
- “Muslim woman wears burkini on French beach as tolerance experiment and immediately gets abuse,” 2016년 9월 18일자,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burkini-ban-muslim-woman-threatened-beach-police-france-islam-terrorism-a7315191.html> (접속일: 2017년 1월 10일)

1) 국외 여성 이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1월·2월」 기사 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밝힘.

2) 저자: 객서희(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2. 워싱턴 여성 행진, 대서양을 건너 런던으로³⁾

지난 1월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제 45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의 여성 비하 발언 및 태도에 반대하고, 여성 인권 신장을 촉구하기 위해 수십만 명이 '여성행진(Women's March)'에 참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진은 비단 양성평등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 인종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 문제 개선 등 폭넓은 사회 내 불평등 문제들을 제기하는 장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 행진은 대서양 건너편 영국에서도 대규모 행진이 개최되었다. 그렇다면 왜 영국에서는 이웃 유럽 국가들에 비해 유달리 큰 규모의 여성행진이 개최된 것일까? 우선 영국 내 미국인 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을 하나의 촉진제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의 여성 행진 참가자들은 여성 인권, 양성평등이라는 기본적인 의제 이외에도, 영국 내 다양한 맥락을 반영한 이슈들 역시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난민 문제 개선, 아일랜드 및 북아일랜드에서의 여성 낙태 금지법 반대 등이 그것이다. 한 여성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여성혐오성 발언을 서슴지 않던 트럼프가 미국의 새 수장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마치 100년 전 시대로 되돌아 간 것 같아 현 세대의 일인으로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남성 참가자들도 상당 수 있었는데, 일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양성 불평등 문제는 남성에게도 책임이 있다", "양성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남성들이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특히 중요하다"등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 행진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시위 피켓에만 남지 않고,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 Chloe Chaplain (2017), "Women's March on London: 100,000 activists demonstrate against gender inequality after President Trump's inauguration," Evening Standard, 2017년 1월 21일자, <http://www.standard.co.uk/news/london/womens-march-thousands-of-activists-march-on-the-streets-of-london-in-support-of-equality-following-a3446331.html> (접속일: 2017년 1월 22일)
- Emma Harrison (2017), "Women's March: Why are UK women protesting?" BBC News, 2017년 1월 20일자, <http://www.bbc.com/news/uk-38665546> (접속일: 2017년 1월 22일)
- Rachel Thompson (2017), "Why Londoners are standing in solidarity with the U.S. at the Women's March," Mashable, 2017년 1월 21일자, <http://mashable.com/2017/01/21/womens-march-london-solidarity/#.kgPgx12fsqm> (접속일: 2017년 1월 22일)

3. 양성평등보너스 폐지⁴⁾

스웨덴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실시해 온 양성평등보너스(jämställdhetsbonus) 제도를 2017년 1월 1일 자로 폐지했다. 양성평등보너스 제도(이하 평등보너스)는 부부 간 육아휴직의

3) 저자: 객서희(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4) 저자: 김연진(스웨덴 룬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평등한 사용 정도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에 추가되는 현금 인센티브로서 부모 간 평등한 육아휴직 분배를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이다. 즉, 부부 중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더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하여 동등한 휴직 활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청은 평등보너스 도입 1년 6개월 후부터 정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보너스 제도 시행 전과 후에 자녀를 출산한 부부 각 4,000쌍의 육아휴직 배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분석에서 스웨덴 남성들은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비해 육아휴직을 짧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회보험청이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부부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더 길게 사용하는 주체는 여성이며, 이들 부부 중 약 28%만이 배우자와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사용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부부 중 한 사람의 임금 소득이 가정 소득의 60-79%를 차지하는 경우, 그 주체의 성별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급여의 약80%를 차지하는 대상 역시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임금의 수준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의 전적인 책임이 여성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지출 대비 제도의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고 평등보너스를 폐지시켰다. 이는 평등보너스의 경제적 유인책으로서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스웨덴 내에서도 부부 간 육아휴직 사용 결정 시 자신들의 소득수준 뿐만 아니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부부 간의 상호 관계 등이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 스웨덴 중앙정부 (<http://www.regeringen.se/rattsdokument/departementsserien-och-promemorior/2015/11/ds-201555/>)-정부보고서 Slopad jaristall/dhetsbonus Ds 2015 55
- 사회보험청(https://www.forsakringskassan.se/lut/p/z0/ZcgxDslwDEbhszBkTgpMbBXiBCxVI8gQ06YkfyZsluvDwMb09D0_-sGPoC1PZLmBytFD-15PQja77tC7cG4whl0vLslLVX-pnBIXQmL8nbgP3dGFVeTRyoKMKdIWf6pqVEqa2fTWCrDy7PffQBoIHg2/)
- 라디오뉴스(<http://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2054&artikel=3578840>)

4. 단편적인 성교육을 넘어선 섹슈얼리티(Sexuality) 교육⁵⁾

네덜란드는 동성결혼, 성 문화 등의 부분에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비교적 개방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의 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네덜란드의 성교육 체제는 단지 성관계나 피임에 대한 교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성이라는 것이 사람 간의 행복하고 긍정적인 관계에서 기반하며 인생에 있어 자연스러운 한 요소라는 것을 전제한다.

네덜란드의 성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한다. 유치원 때부터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도입하여, 약 4-11세 아동은 근본적인 인간관계, 친밀감, 애정 등에 대한 개념을 함께 솔직하게 얘기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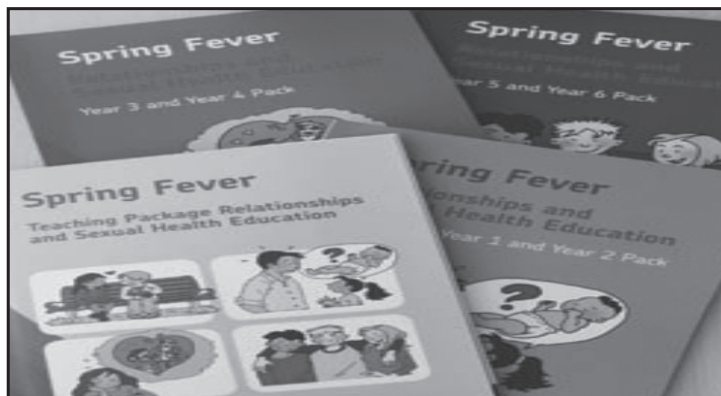
5) 저자: 박서희(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수업을 받는다. 그리고 10대로 넘어갈 때, 학생들은 안전한 성과 피임에 대해 배우게 된다. 봄 학기 중 1주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데, Lentekriebels라는 본 프로그램은 일명 “Spring Butterflies Week” 또는 “Spring Fever”라고도 불린다. 청소년 단계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섹슈얼리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원치 않는 성관계에 있어 거절하는 법, 피임 또는 상대방에 대해 성적으로 존중하는 법, 올바르게 인터넷을 사용하며 성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더불어 성적 정체성에 대한 주제도 다루며, 여기에는 동성(homosexuality)도 포함된다.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분야를 전문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네덜란드 기관인 Rutgers International 내에서 청소년의 성 관련 전문가인 Ineke van der Vlugt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긴 바 있다.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성관계 그 이상입니다. 개인이 각자 형성하는 성적 이미지, 정체성, 성 역할, 자신의 성적 표현 방법 등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성에 대해 인식하고 접근하는 방식과 어린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음지가 아닌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한국의 성 교육에서도 긍정적인 벤치마킹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네덜란드 성교육 교재 일부 모습



출처: Rutgers International 웹사이트, <http://www.rutgers.international/what-we-do/comprehensive-sexuality-education/spring-fever>

- Arjun Walia (2015), "In the Netherlands sex education starts in kindergarten: Here's what they tell them and why," 2015년 6월 22일자 (<http://www.collective-evolution.com/2015/06/22/in-the-netherlands-sex-education-starts-in-kindergarten-heres-what-they-tell-them-why/>), 접속일자: 2017년 2월 11일)
- Laurel Avery (2016), "Sex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2016년 6월 27일자, (<https://dutchreview.com/dutchness/the-foreign-perspective/sex-education-in-the-netherlands/>), 접속일자: 2017년 2월 11일)

5. 난민여성의 안전 문제는 어떻게 다루지고 있는가⁶⁾

유럽은 최근 몇 년간 난민 유입과 연관된 다양한 사회 갈등 및 문제들을 겪고 있다. 그리고 난민들 중에서 여성 난민들은 보호의 사각지역에 놓여있다. 특히 난민 유입이 많은 독일의 경우, 여성 난민들(refugees)이 여성대상폭력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성난민 비정부 기구인 Women's Refugee Commission에 따르면, 이러한 임시보호소들은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 비좁은 보호시설에서 여성이나 여아들은 성희롱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독일 연방가족부 장관(Federal Minister of Family Affairs)인 Manuela Schwesig는 난민 여성, 아동의 안전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UNICEF, 독일 적십자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독일 전역에 걸쳐 25여개 난민보호소 설립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본 사업에는 숙련된 전문 사회 복지사들이 난민 보호소 내 여성이나 아동의 폭력 피해 징후를 점검하고, 그 경우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고, 개인 샤워실이 딸린 개별실이 제공되기도 했으며, 여성과 여아가 포함된 가족 구성원들의 경우 일부 공간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주기도 한다.

독일의 연방 이주 및 난민국(Federal Agency for Migration and Refugees)의 지침에 따르면, 망명신청 여성이 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전문적으로 훈련된 여성 담당관 및 여성 통역가가 해당 사건을 면담, 조사하는 것으로 배정된다. 이 밖에도 독일 내 여성단체들은 난민보호소에 가서 "여성 카페(a women's cafe)"를 열어서 여성들이 편안하게 다과를 즐기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 즉 수요를 직접 취합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단체들은 한 가지 발견한 점이 있는데, 바로 대부분의 난민 여성들이 그들에게도 권리(rights)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활동가는 언론을 통해 난민 여성들에게는 현재 그들에게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법적 역량강화(legal empowerment)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난민 여성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정부와 비정부기구 등이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웹사이트, "Thematic focus: Gender-based violence," (<http://fra.europa.eu/en/theme/asylum-migration-borders/overviews/focus-gender-based-violence>, 접속일자: 2017년 2월 14일)
- Lizzie Dearden (2017), "Germany offers asylum seekers up to £1,200 each to voluntarily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Independent, 2017년 2월 3일자,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germany-offer-asylum-seekers-1200-euros-voluntarily-return-home-countries-refugees-crisis-merkel-a7561701.html>, 접속일자: 2017년 2월 14일)
- Sonia Narang, "Germany Makes Refugee Shelters Safer For Women - But Problems Remain," Huffington Post, 2016년 10월 10일자, (http://www.huffingtonpost.com/entry/germany-makes-refugee-shelters-safer-for-women_us_57f7bb41e4b0b6a430319970, 접속일자: 2017년 2월 14일)

6) 저자: 객서희(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KWDI 동정 (2017. 1 ~ 3)

2017년 여성신년인사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1월 20일(금)에 연구원 다목적홀에서 '희망찬 대한민국,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듭니다!'를 주제로 2017년 여성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명선 원장 등이 참석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교류와 협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년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3월 2일(목)에 연구원 3층 회의실에서 2017년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018년 연구사업과 중장기 연구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성단체 간담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3월 3일(금)에 연구원 3층 회의실에서 “여성단체가 제안하는 2018년 여성·가족정책 연구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 연구원의 연구사업과 기관운영에 대한 의견과 2018년도 연구과제 발굴 등에 대한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7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성인지적 헌법 개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우리 연구원은 3월 8일(수) 오후에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성인지적 헌법 개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 튀니지, 핀란드의 양성평등 및 여성인권 관련 헌법 조항 선진 사례들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있어 향후 발전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모하메드 알리 나프티 주한 튀니지 대사, 정춘숙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달렌다 라르게시 튀니지 여성정보문서 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튀니지 여성정보문서연구원 상호 업무 협력 협약식 개최



우리 연구원은 3월 8일(수) 오전 연구원 3층 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활발한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튀니지 여성정보문서연구원과의 상호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위촉식 개최



우리 연구원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3월 23(목)에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내실있는 운영과 지역 여성정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위촉된 2017년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들과 함께 향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협의회 개최



— 우리 연구원은 3월 24일(금) 오전에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2017년 상반기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여성가족부와의 공식적 의사소통 채널인 정책연구협의회를 연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여성·가족 관련 주요 정책 현안과 연구원의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